광주시, 난임부부 지원 성과…지난해 26명 임신

시술 비용 추가 70명·한방 치료비 100명 지원

다음달 말까지 약제·혈액검사비 지원 대상 모집

광주시는 경제·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에게 희망을 안겨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한 난임부부 양·한방 시술·치료비 지원 서비스가 빛을 보고 있다. 양·한방 시술·치료비 지원을 받은 26명이 임신에 성공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행 첫 해인 지난해 난임 여성 70명에 대해 난임시술비 추가지원을, 100명에게 한방 난임 치료비를 지원했으며 이 중 26명이 임신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1년 이상 광주에 거주한 난임 여성 중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횟수를 모두 소진한 이들을 대상으로 관련 비용을 추가 지원하고, 건강을 위해 연내 최대 4회, 회당 20만~150만 원을 소득·시술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

기존 정부 지원 사업에서 지원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자도 해당되고, 다른 지역 의료기관 이용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난임 부부의 만족도가 높다.

시는 또 6개월 이상 광주에 거주한 난임 여성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3개월 간 약제비와 혈액검사비 등을 지원하는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사업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중이다.

지원받길 원하는 난임 여성은 4월30일까지 광주시 한의사회(062-223-9481)로 신청하면 대상자 100명을 선정해 개별 통보한 다음 난임치료를 실시하게 된다.

박향 시 복지건강국장은 "난임은 개인,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인 만큼 난임 부부가 임신 준비 과정에서 경제·심리적 고통으로 희망을 잃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윤희 기자

광양시, 셀프 탁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집에서 셀프 탁구놀이로 재미있게 건강 관리

광양시가 코로나19로 집에서 일상생활을 보내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들을 위해 '셀프 탁구놀이 프로그램'을 3월 19일까지 진행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교육 중 건강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생활지원사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100명의 가정을 방문해 셀프 탁구세트를 설치한 뒤 사용법을 안내하고 같이 활동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은 "그동안 코로나19가 무서워 운동을 나가고 싶어도 선뜻 나가지 못해 신체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다"며, "탁구채를 손에 쥐고 공을 맞히는 게 쉽진 않았지만, 탁구를 하면서 운동도 되고 웃을 수 있어 매우 즐겁다"고 전했다.

하태우 노인장애인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르신들의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저하된 신체적·정서적 기능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건강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전 수행인력들의 주 2회 정기적인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방문 시 발열 체크와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 준수로 노인돌봄서비스를 빈틈없이 진행하고 있다.

광양=심종섭 기자

영광군, 치매안심센터 군남 분소 운영

맞춤형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

영광군은 지난 4일 부터 군남면 보건지소 내에 치매안심센터 군남 분소를 설치하고 주1회(매주 목요일)운영하고 있다.

군남면은 타 읍·면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및 치매 환자수가 현저히 높아 효율적인 치매업무 추진을 위하고 치매안심센터 이용의 편의제공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해 분소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분소에서는 만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사업, 건강교실, 쉼터 운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조호물품 제공, 맞춤형 사례관리 등을 제공함으로써 치매 유병률 감소, 치매환자 및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따라 수요자 중심의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지역사회와 함께 돌보는 행복한 치매안심 영광군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영광=서희권 기자

장흥군, '코로나에도 영양 섭취 든든하게'

집콕 종합선물세트로 밀착복지 앞장

장흥군 드림스타트는 지난 11일부터 저소득 가정 144가구 228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영양가 있는 집밥을 섭취할 수 있도록 집콕 종합선물세트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일상생활의 제약이 커지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가정 내 식품 구매량 또한 증가했다.

이로 인해 취약계층의 식품 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높아지자 장흥군 드림스타트는 영양 식품 및 간식을 지원하여 저소득 가정에 도움을 주고자 집콕 종합선물세트를 전달하기로 했다.

집콕 종합선물세트는 아이들이 선호하는 돼지고기, 햄, 참치와 LD마트가 후원한 오렌지 꾸러미, 영양 간식 시리얼로 구성됐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건강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이다"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려운 가구에 대한 밀착복지 행정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드림스타트는 복지부의 대표적인 '취약계층 아동 지원 통합 서비스' 정책으로, 서비스는 크게 신체 건강·인지 언어·정서 행동·부모 가족으로 나뉘며 필요 부분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장흥=김도영 기자